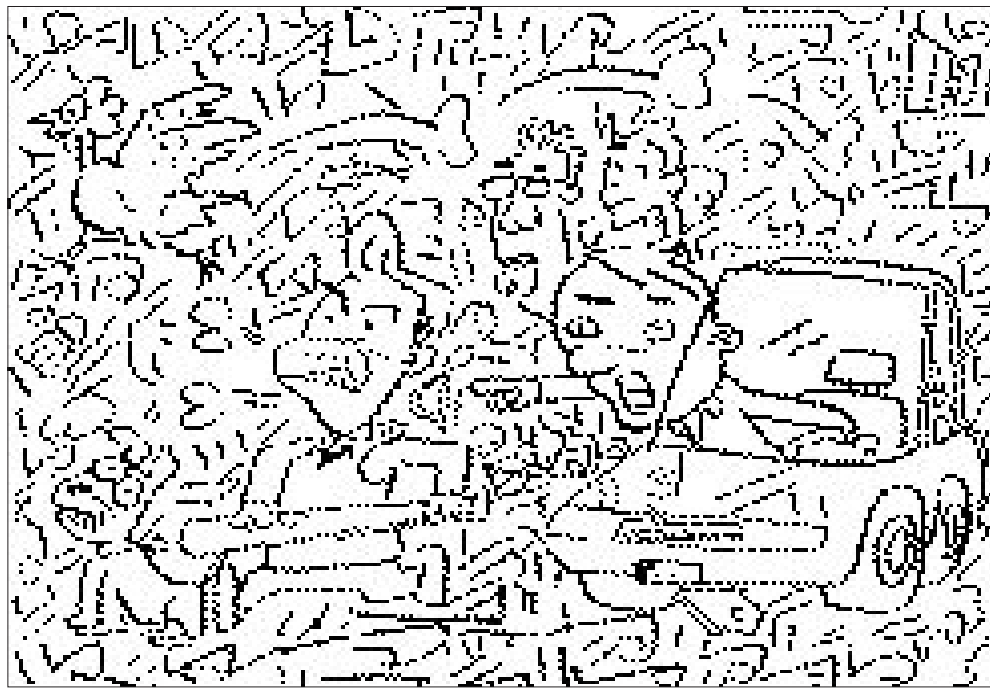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19>



찾아(보)세(요) 바늘, 열대어, 새집, 음료, 스피커, A자, 송사리, 셔플록, 다리미

스포츠키타와 닭

한 남자가 새로 산 스포츠키타를 타고 길을 달리고 있는데, 닭 한마리가 엄청난 속도로 차를 추월해 달리고 있었다. 남자는 동네를 수소문해 닭 주인을 찾아 말했다.

“그 닭을 100만원에 파시오.”
주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럼 1천만원에 파시오.”
주인은 그래도 막무가내였다.
“그럼, 3천만원에 내 차까지 줄테니 파시오.”
그때도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화가 나서 말했다.

“도대체 안 파는 이유가 뭐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길 “잡혀야 팔지요.”



지난주 정답

성남개비, 셔플록, 아이스크림, 고추, 칫솔, 열대어, 만년필, 슬리퍼, 다리미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신판수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김용열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4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2000년 4월 10일 오전 10시,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6대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깜짝 발표에 당시 야당 등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이슈 전환용 회담'이라는 공세를 퍼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제5공화국 때 최초로 공식 제안되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와 취임 1주기 기자회견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개최를 비밀리에 추진한 끝에 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회담 개최를 17일 앞둔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와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 교환과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며 남북 만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999년 3월 9일에는 독일을 국빈방문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자유대학에서의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위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베를린 선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2000년 6월13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상봉하고 있다.

여러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며 "북한은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를 위해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도 촉구했다.

베를린 선언 직후인 3월15일 김대중 대통령은 비밀리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대한 특사 임무를 부여했다. 박지원 장관은 3월17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갖는다. 그후 수차례 비공개 협의를 가진 뒤 4월 8일 남북한은 정상회담 개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2000년 6월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남북 정상은 한반도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맞잡으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과일식초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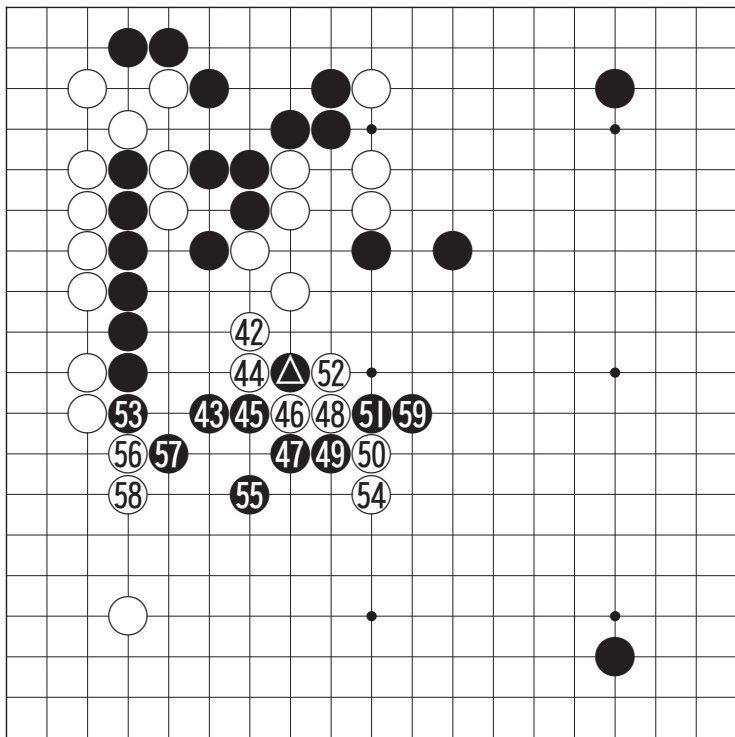
과일식초는 다이어트와 미용에 효과가 좋은 건강식입니다. 집에서 과일을 이용해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재료 : 과일 100g, 식초 200cc 흑설탕 100g>

- ① 과일은 1cm 두께로 동그랗게 썬 뒤 버에 담아둔다. 재철과일을 이용해 만들어 먹어도 좋고 파마이나 오이, 양파 등의 채소를 사용해도 된다.
② 흑설탕을 과일에 골고루 뿌려준다. 당도가 높은 식초를 사용할 때는 설탕의 양을 조금 줄여준다.
③ 식초를 붓고 고무 섞어준 뒤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 정도 살짝 가열해준다. 이때 반드시 과일이나 곡물로 만든 식초를 사용한다.
④ 서늘한 곳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먹는다. 과일은 건져서 먹어도 좋고, 원액은 희석해서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4월 9일(음 3월 4일 卯)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of April 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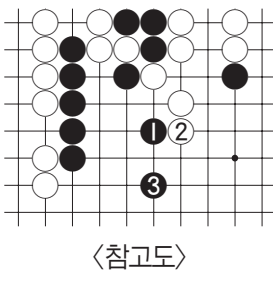
기우회 대항전

전보의 마지막 수인 흑 ▲는 기분에 치우친 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두고 3으로 한칸 뛰는 것이 정수로, 이렇으면 백의 반격을 피할 수 있었다.

백 42로 빗물을 비집은 수가 예리한 수로 흑의 기세를 꺾고 있다. 이때 흑이 44로 막으면 이단짓힘을 당해 흑이 곤란하다. 하는 수 없이 흑 43으로 늦춰 받았으나 백 46으로 끊고 보니 애초에 기세등등하게 모자를 씌웠던 기세는 간데없고 수비에 급급하다.

예리한 반격 4보(42~59)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 黑 김희관 5단 (무석회)



김희관 5단 손맛을 다시며 흑 함계를 버리고 47, 49로 밀어붙여 수습에 여념이 없다. 반대로 역습에 성공한 기용성 5단 강력하게 50으로 짓혀 흑 대마를 끌개지 추궁한다.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세'라고 할 수 있다. 기세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김희관 5단 51로 끊어 반격을 시도하고 있으나 주도권은 백이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강동윤 하이원배 첫승

강동윤 7단이 8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본선 리그에서 독전석 9단을 147수만에 불계로 물리치고 리그 첫 승을 따냈다.

국내 대표적인 '삼 바둑꾼'인 두 기사는 초반부터 손에 땀을 쥐게하는 난전을 펼쳤다. 팽팽하던 승부는 강동윤이 상반 전투에서 승기를 잡으며 한순간에 기울었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 2시간 60초 초읽기 3회이며 리그 1, 2위가 결승 5번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 상금은 1억원. 4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원성진 9단과 최원웅 5단이 맞붙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35>

What are you doing?
무엇을 하고 있니?

A: What are you doing?
B: I'm fixing the faucet.
A: Can I help you?
B: Sure, go grab my tools out of the closet.

A: 뭘 하고 있는 거야?
B: 수도꼭지를 고치고 있는 중이야.
A: 도와줄까?
B: 그래, 가서 작은 창고에서 내 공구를 꺼내 내줘.

- \* faucet : 수도꼭지
\* grab : 움켜잡다
\*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 What are you thinking?
\* 뭘 먹고 있니?
= What are you eating?
\* 뭘 사는 거니?
= What are you buying?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35>

日本料理はあっさりしてますね。
일본요리는 담백하더군요

A: 韓國料理(かんこくりょうり)は刺激(しげき)の強(つよ)いものが多(おほ)いでしょう。
B: ええ、日本料理と性質(せいしつ)が正反對(せいはんたい)のように思いますね。
A: 韓國料理に比(くら)べると、日本料理はあっさりしてますね。それに少(すこ)し甘(あま)いものが多(おほ)いんじゃないですか。
B: そうですね。ですから始(はじめ)めて日本料理を食(た)べる人は口(く)に合(あ)わない人も 大勢(おおぜい)いると聞(き)きました。

A: 한국요리는 자극이 강한 것이 많죠?
B: 예. 일본요리와 그 성질이 정반대인 것 같군요.
A: 한국요리에 비하면 일본요리는 담백하더군요. 게다가 조금 단 것이 많지 않습니까?
B: 그래요. 때문에 처음 일본요리를 먹는 사람은 입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刺激(シげキ): 자극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12>

我要两块糖。
나는 두 개의 사탕을 원합니다

A: 你要什么?
nǐ yào shénme
니 요오 셴메
B: 我要两块糖。
wǒ yào liǎng kuài táng
우 요오 리양 쿵아이 탕
A: 还要什么?
hái yào shénme
하이 요오 셴메
B: 还要两块蛋糕。
hái yào liǎng kuài dāngāo
하이 요오 리양 쿵아이 탕

A: 我要两块糖吗?
B: 对, 我要两块糖。
A: 还要两块?
B: 我还要两块糖。

块 [kuài] (량) 덩어리, 개
糖 [táng] 사탕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383-1605

한자 이야기 <122>

空念佛(공염불)
빌공, 생각할 녘, 부처 불

공염불(空念佛)은 '헛 염불' '거짓 염불'이라는 뜻으로, 말만 앞세우고 실체가 없음을 비유한다. 염불(念佛)은 부처를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부처의 상호(相好), 즉 그 모습을 마음으로 관찰(觀察)·관상(觀想)하면서 그 공덕을 기리는 일을 의미한다. 흔히 목탁을 치며 불경을 읽는 것을 '염불'로 알고 있다. 이때 불경에서 드러내는 부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되고, 또 올바른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염불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염불수행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믿음(信)'과 '바람(願)'과 '행함(行)'을 갖추어야 한다. 믿음은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바람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왕생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친척, 나아가 모든 생명체들의 왕생을 바라는 것이다. 행함은 자신의 입으로 부처를 부르고, 다시 그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항상 부처와 함께 있음이다.

자신의 입으로 내건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한 선거공약(選舉公約)이 되어버린다. 행동이 없는 입 끝으로만 외는 공염불의 선거공약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여원(韓喜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은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